

韓國의 人間像

李 熙 昇

사람마다 趣味가 다르고 職業이 같지 않으며 또는 專門의 方向이 가지 各色이기 때문에, 萬人을 爲한 책을 發見하기란 그다지 容易한 일이 아니다. 더우기 大學生들을 主되는 愛讀者로 想定할 때에 書籍의 選擇은 一層 困難하다.

熟考의 나머지 나는 題目과 같은 책을 擇하여 推薦하기로 하였다. 그 理由는 사람은 누구나, 무엇보다도 먼저 꼭 바른 人生觀을 體得하여야 하겠고 그리 하자면 우선 人間을 공부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것을 人間學이라고 할는지 人間の 歷史 위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타입의 人間을 될 수 있는대로 골고루 알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 한가지 注意하여야 할 것은, 虛空에 뜬 「유토피아」나 「코스모폴리탄리즘」에만 쏠릴 것이 아니라, 우리 現實 生活의 基始가 되는 韓國이란 舞臺와 우리 生活 理念의 指標가 되었던 精神文化의 傳統을 더듬어 보아야 하겠다.

이러한 目的을 達하기 爲하여는 이 「韓國의 人間像」이란 책이 가장 適當한 材料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책에는 古代에서 近代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歷史上에서 가장 活躍의 度가 높은 二百名의 人物을 골라내서, 그들의 活動中 우리 生活史에 가장 많을 影響을 끼친 部分만을 추려서 收錄한 것이다.

이들 人物 中에는 偉人·天才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叛逆者·賣國奴 賤民들도 끼어 있다. 이것은 우리 先人들의 生活의 여러 面을 골고루 알아

※ 필자: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장. 국문학전공.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보자는 것이다.

이 책은 六卷으로 되어 있어서, 그 第一卷은 「王家와 政治家篇」이니, 여기서 歷代의 有名한 君王과 政治人들에 對한 記錄을 拔粹하여 실었다. 第二卷은 「軍人·革命家篇」, 第三卷은 「宗教家·社會奉仕者篇」, 第四卷은 「學者篇」, 第五卷은 「文學·藝術家篇」, 第六卷은 「近代先覺者篇」等으로 構成되어 있어서, 實로 各界 各層을 두루 網羅하였다. 이 책이야말로 우리 民族의 生活記錄의 縮圖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이 책(六卷)을 通讀한다면, 그 結果로 우리 韓國人으로서의 生活理念이 세워질 것이요, 따라서 앞으로 나갈 方向의 角度도 自然 定해지지 않을가 한다.

이 책에는 또한 人物, 影幀, 筆蹟, 遺物 等の 寫眞 五百餘種이 收錄되어 있을 뿐 아니라, 人物의 年譜와 參考文獻까지도 附錄으로 添附되어 있다. 또 이들 材料에 對한 執筆은 各界 專門研究家들에게 委囑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平易한 國漢文으로 叙述되어 있으므로, 中學卒業 程度의 사람이면 누구든지 별로 困難없이 通讀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人生觀! 이것이 確立되어야 人生의 眞正한 價値를 깨달을 수 있고 人生의 價値觀이 뚜렷이 서게 된 後에야, 그 사람은 비로소 바르고 보람 있는 人生行路를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前萬古 後萬代에 다시 되푸리 될 수 없이 오직 한번만이 世上을 다녀가는 것이니, 그 자취를 소홀하고 無價値하게 남길 수는 없는 것이다. 모름지기 讀書로써 次元 높은 人生觀을 세우자.